



2월 3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2.12	2.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14.93	1,126.91	↓ -1.06	↑ 1.00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222.52	6,151.73	↑ 1.15	↑ 4.07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1,544.30	50,731.63	↑ 1.60	↑ 7.94	25,981.24 '20/03/23	51,544.30 '21/02/12
중국	상해종합	3,655.09	3,496.33	↑ 4.54	↑ 5.24	2,660.17 '20/03/23	3,655.09 '21/02/10
	심천종합	2,460.54	2,332.53	↑ 5.49	↑ 5.63	1,631.88 '20/03/23	2,462.85 '21/01/25
홍콩	H	11,880.49	11,561.32	↑ 2.76	↑ 10.64	8,559.64 '20/03/19	11,960.49 '21/01/25
	항셱	30,173.57	29,288.68	↑ 3.02	↑ 10.81	21,696.13 '20/03/23	30,173.57 '21/02/11
한국	KOSPI	3,100.58	3,120.63	↓ -0.64	↑ 7.90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2.12	2.5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31	2.27	↑ 3.90	↓ -26.6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22	6.16	↑ 5.90	↑ 33.2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5.99	6.07	↓ -8.10	↑ 12.5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4	3.22	↑ 2.20	↑ 9.7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83	1.78	↑ 4.80	↑ 10.80	1.26 '20/03/09	1.83 '21/02/10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2.12	2.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96.00	22,999.00	↓ -0.01	↓ -0.44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3,973.00	14,030.00	↓ -0.41	↓ -0.55	13,660.00 '20/02/17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2.76	72.93	↓ -0.24	↓ -0.43	71.29 '20/02/17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6	6.47	↓ -0.12	↓ -1.06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02.97	1,123.81	↓ -1.85	↑ 1.51	1,081.81 '20/12/04	1,285.73 '20/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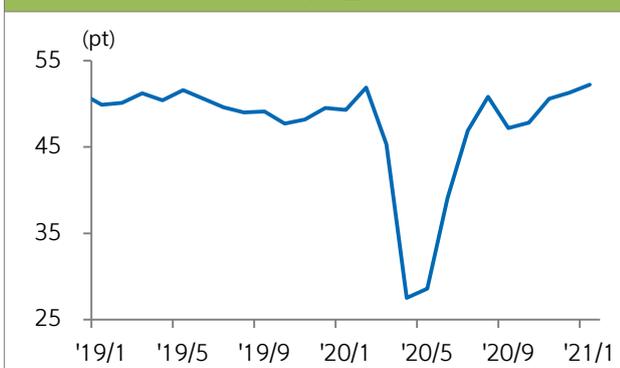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제조업 부문에 비해 소비/서비스 부문 부진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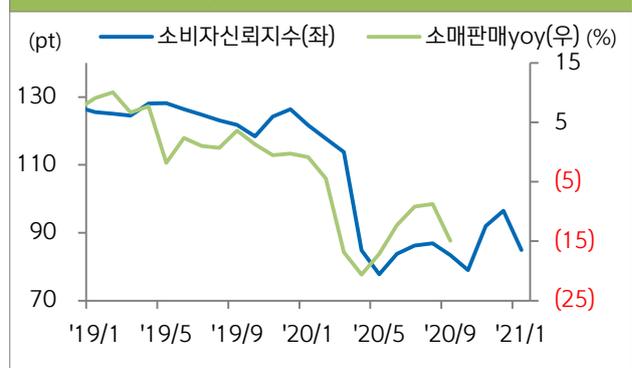
- 1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2.2pt 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3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50pt를 넘어서면서 제조업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음. 非원유/가스 부문에서의 제조활동 증가가 제조업 부문의 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주요 원자재 수입 국가인 중국의 제조업 PMI는 중국 정부의 다소 긴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하였지만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누적 백신 접종자가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등 빠른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보완적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긍정적인 흐름과 다르게 소비자 신뢰지수는 84.9pt로 다시 한 번 하락하면서 기준치인 100pt를 하회하였음. 1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일 1만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 활동이 제약되는 흐름이 지속되었음. **거기에 인도네시아의 내수 부문 기여도가 높은 관광 산업의 경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통제로 인해 입국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비 심리의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1월 중순부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을 승인하는 등 백신 접종의 빠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연초부터 지진, 화산,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방역 및 경제 활동 재개에 제약이 되고 있음. **1분기 중 인도네시아 경제의 빠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용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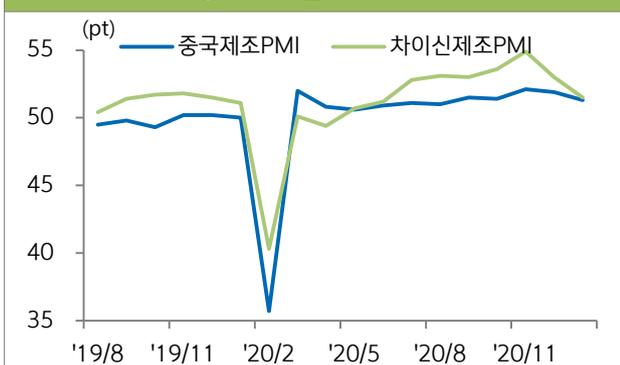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관광객 입국자수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경제계획장관, 인도네시아가 저소득 중진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



❖ 요약 및 시사점

'20년의 충격적인 역성장으로 인해서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1인당 \$4,000에 못 미치는 국민소득국가인 저소득 중진국으로 분류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성장률을 매년 5%대로 유지하여 2045년 1인당 \$12,000을 넘기 위한 방향은 유지함

-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2.07%의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경제계획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저소득 중진국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어놓았음. 경제계획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조정되었다고 말하였음.
- 2020년에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19년 \$4,174수준에서 2020년 3,911달러로, 1인당 총국가소득(GNI)은 2019년 \$4,047에서 2020년 \$3,8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은행이 2019년 말에는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46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소득 중진국에서 상위 중진국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었음.
- 장관은 2021년에 4.5~5.5%의 성장을 하고, 22년에 5%대 성장을 해야만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위 중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성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럼에도 매년 5%대 성장을 2045년까지 지속만 해낸다면, 204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12,000까지 높이면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였음.
- 장관은 2020년 -3.5% 성장한 미국이나 -9.5% 성장한 필리핀, -8.3% 성장한 멕시코 등에 비해서는 성장의 감소폭이 작은 편이라고 하면서도 +2.9% 성장한 베트남이나, +2.3% 성장한 중국, +3% 성장한 대만에는 못 미쳤다고 평가하였음.



중앙은행 총재, 아직 금리 인하 여지 있다고 발언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 총재는 인도네시아가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였음.

금리 인하 여력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대외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즉각적인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중앙은행이 현재 3.75%인 기준금리를 경제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낮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였음. “금리 인하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금융 안정성, 특히 루피아화 환율의 안정성도 같이 고려하며, 경제 회복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총재는 의회에서 말하였음. 2020년에는 5번에 걸쳐 1.25%p를 낮추어 3.75% 까지 인하하면서 2013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기준 금리를 낮추어 두었음.
- 총재는 기준금리가 루피아화 환율, 대외 안정성 및 국가 경제 등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었지만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한 바 있음.
- 중앙은행은 그동안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GDP의 4.8%에 달하는 740.7조 루피아를 공급하였다고 총재는 덧붙였음. 이중 726.6조 루피아는 2020년에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2/4까지 14.16조 루피아를 공급하였음. 이러한 규모는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총재는 강조하였음.
-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정부와 협력 및 시너지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음. 2020에는 국채 직매입 정책에 힘입어 473.4조 루피아의 국채를 매입하였으며, 올해는 2/4까지 35.7조 루피아를 사들이면서 지원하였음.



국영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경제가 타국에 비해 상대적 양호하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국영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국영기업들이 백신 운송 및 환자 케어 등의 공적 업무에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 국영기업부 Erick Thohir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필리핀,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하였음. 다른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서 인도네시아도 선방하였다는 평가임.
- 장관은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올해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내년에 더 빠른 성장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Thohir 장관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국영기업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들은 상업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충분한 병상을 공급한다던가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국영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백신 공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였음.



경제조정 장관, 세밀한 지역 활동 제한 정책 방안 제시



❖ 요약 및 시사점

2월에도 일단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2월 9일부터 22일 까지 활동 제한 조치를 연장하였음. 이번 조치에서는 산업 부문에 따라서 출근 가능 인원, 모임 가능 인원 수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세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세밀한 접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2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가서 2월 22일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하였음.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활동 제약은 직장이나 사무실 등에 대한 제한을 포함합니다. 허용되더라도 보건 지침을 강하게 준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장관은 말하였음.
- 사무실에서 출근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는 전체 가용 인원대비 최대 50%로 제한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요한다고 설명하였음. 교육 및 학습 활동은 온라인으로 지속되며,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부문들은 100% 인력 현장 근무를 허용하지만 보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서만 인력의 출근을 허용한다고 제약을 두었음.
-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현장 취식은 50% 이내로 제약을 하며, 쇼핑몰 등의 운영시간은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WIB) 기준 오후 9시로 제한하도록 하였음. "주문 배달을 통한 영업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라고 장관은 덧붙였음.
- 건설활동은 100% 현장 업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예배당에 대해서는 전체 가용 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강력한 보건 지침을 따를 때만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음.
- 공공 시설과 사회문화 활동은 한시적으로 연기되며, 대중 교통은 운영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 방향임.
- 이러한 지침의 적용은 주, 도시, 지방 및 하부 지역 등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 장관은 이러한 규제가 확진자수 증가세를 잡고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잡히면서 국가 경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였음.



국제 무역협정이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해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을 이어가기 위해 RCEP를 비롯한 국제 무역 협정을 확대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지난해에는 철강 등 非석유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음.

- 무역부 Muhammad Lutfi 장관은 무역부가 非석유 가스 부문의 수출을 높여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헤어나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장관은 인도네시아 경제 개발 연구회와 인도네시아 대학 경제 사업 연구진들이 개최한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무역부의 계획을 말하였음.
- RCEP, 인도네시아-대한민국 CEPA, 인도네시아-파키스탄 PTA, 인도네시아-호주 CEPA 등 인도네시아는 각종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2020년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2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무역수지 흑자는 상당부분 아직까지는 수입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임.
- Lutfi 장관은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111.3억 달러, 인도에 대한 흑자 64.7억 달러, 필리핀 52.6억 달러 등에 힘입었다고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5대 수출 품목은 2019~20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46.84% 증가한 철강, 24.21% 증가한 보석, 17.5% 증가한 팜원유(CPO), 11.64% 증가한 가구, 8.97% 증가한 신발류였음.
- 지난해 철강 원자재 수출은 인도네시아의 非석유가스 수출에서 3번째로 높은 규모를 차지하였고, 전체 규모는 108.5억 달러, 7%를 차지하였음. 인도네시아산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철강 생산자임. 그리고 인도네시아산 철강의 70% 넘는 양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2020년에 보석류 수출은 인도네시아 非석유가스 수출에서 5번째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5.3%를 차지하고 82억 달러를 차지하였음. 전체 보석류 수출의 80%는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산 수출에 대한 보호와 무역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지워하고 있음.



인니 물류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0.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물류 시장은 아직까지 대규모 사업주들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있지 못하며, 충분한 운송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물류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 전망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육상 운송 서비스가 운송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물류에 있어서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차량 운송이 가능한 차량 숫자의 제한으로 인해서 과적을 통해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로 운송은 인도네시아의 국경 내에서 전체 물류 규모의 70~80%를 담당하고 있음. 가치 규모로는 도로 운송이 전체 물류 시장 규모에서 40~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도로운송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구에 필요한 상품들을 운송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자바나 발리와 같은 지역은 도로 운송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음. 발리만 하더라도 물류 흐름의 대부분은 발리지역의 관광 소비와 관련한 것이며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음. 이 작은 섬에서의 물류 대부분은 다른 섬이나 다른 국가에서 해상 운송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비싸게 운송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이 낮은 편임 그러나 점차 전자 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이 되고 있음. 글로벌 및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끌면서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부문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면서 글로벌 국가들 가운데 전자상거래에서 핵심적인 국가가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전자 상거래는 두자리수 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비해 아직까지 시장 성숙도는 낮지만 2.6억 이라는 인구를 감안한다면 매년 수백만의 인구가 신규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기도 함. 2020년 말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 규모는 1,3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간 및 국내 도로 운송 물류의 시장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도로 운송을 감당하기 위해서 트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물류용 트럭에 대한 수요는 향후 몇년간 매년 50%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성장성은 인도네시아의 고속도로 개발 공급과 대형 기업들의 공장 확장에 기인한 것임.
- 물류 산업의 서비스는 트럭 육상 교통기업과 선박, 철도 운송 기업들 간에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때 더 강화될 수 있으며, 해상 운송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과 지역들을 연결해 낼 때 더욱 큰 힘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뒷면 계속)

- 그러나, 트럭 운송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운송의 규모와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여러 필요 정책들 가운데 산업 단지로의 진입 및 진출과 관련한 정비를 통해 산단으로의 교통 유입 유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인도네시아의 물류 산업은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 단계에 이르지 못 하였으며, 해외 기업들 만큼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임. 해외 기업들이 전체 시장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70%는 소규모의 국내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음. 소규모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도는 중간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10개의 대규모 물류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도 3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거대한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운송 관련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임.





Pertamina, 2021년 원유 수입이 전년대비 50.4% 증가 예상



❖ 요약 및 시사점

국영 석유회사 Pertamina는 2021년에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입이 2020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2020년 대비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19년 대비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는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에 원유 수입이 5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상수지를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Pertamina는 더욱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인도네시아산 원유는 더욱 비싸게 수출하고, 수입유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 Pertamina는 2021년에 1억 1,8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하여서 2020년의 7,870만 배럴 대비 증가세를 전망하였음. 2021년의 원유 수입 전망치는 2019년의 8,690만 배럴에 비해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 ▶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원유 및 가스 계약과 관련하여 Pertamina나 다른 국내 정유 업체들과의 거래를 최우선시하도록 하는 규제를 2018년에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원유 수입을 최대한 통제해보겠다는 취지에서였음.
- ▶ 반면 인도네시아산 석유는 해외에 더욱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해서 원유 수출입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